

2020년 3월 1일

주일예배문



구세군안양영문

예배로 나아감

찬양하며 우리들의 마음을 드립니다.(찬양인도: 정진숙사관)

-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임하리
- 이와 같은 때엔
- 목마른 사슴
-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드립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꺾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왕상8:37-40)

이 땅의 황무함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구세군안양영문의 모든 예배자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찬송가 8장(통합9장)

- 거룩 거룩 거룩

신앙선포

- 구세군 교리문

기 도

-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길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앞에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하셨사오니 이 땅의 죄악을 사하시고, 회개하는 저희들을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들을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어, 이 땅이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두려운 마음과 불안감이 스며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퍼지면서 일상생활의 평온함도 깨졌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할 신자들의 삶이 경계심을 갖게 됩니다. 낮선 이들 뿐만 아니라 잘 아는 사람들과의 친밀함도 깨져 주일예배를 각 가정에서 드리게 된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주일예배는 각 가정에서 SNS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온전한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예배와 신앙생활의 갈급함을 통하여, 매주일 평안히 하나님께 예배드린 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주님을 열망할 수 있는 신앙으로 채신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분명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저희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그들의 치료를 위해 애쓰는 의료진, 방역과 감염차단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루 속히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방역당국에 지혜와 은혜를 베푸셔서 진정 국면에 접어들게 하시며, 수고하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저희들로 서로가 기쁨과 평화를 나누는 예배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101년 전 오늘 이 땅에 삼일운동이 허락하셨던 은총을 감사드리며, 나라를 지켜 주신 주님, 다시 구하오니 이 나라가 믿음으로 세우지고, 공의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각 자가 각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믿음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드리며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설교자로 세우신 담임사관님께 성령님의 기쁨을 부으셔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구세군안양영문의 모든 군우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 어려운 때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생업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개학을 미루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새학기를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고통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안양영문의 모든 군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방패로 지켜 주시고, 막아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길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소식

- 사순절이 2월 26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류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더욱 깊어지는 신앙의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 오늘은 영문학생주일, 청소년주일입니다. 새학기를 준비하는 영문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국가적인 비상체제에 있습니다.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3월 8일(주)까지 모든 예배는 SNS온라인예배와 인터넷 구세군안양영문 홈페이지를 통하여 진행됩니다.
- 영문에 회집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고, 셀모임 개강시기 또한 좀 더 늦추도록 합니다. 추후 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문 시설에 대한 방역 소독 작업은 주2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섬겨주시는 남병사회장 하승호 부교동부인께 감사를 드립니다.
- 실무정교 및 각부서장들께서는 속해있는 군우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비상연락 체계를 이루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비상시 담임사관에게 꼭 연락바랍니다.
- 교인소식, 서용한청년(안양대 경영학과 신입생) 이사, 정진해담임보(사관학교헌신자, 안양보육지원센터근무)이사, 고재영군우가정이 시흥에서 안양으로 이사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270장(통합214장)

- 변찬은 주님의 사랑과

목회기도

- 담임사관

성경봉독

-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마24:4-6)
-
-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벰전4:7)

설교 “깨어있는 신앙인이 됩시다.”

- 한국교회사에 유래가 없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23년 전 구세군사관학교시절, 미래사회에서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계좌로 송금한다는 이야기를 나눈 것이 기억납니다. 또한 컴퓨터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감람산에 앉아 팔복을 강해하실 것이라는 꿈같은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한국교회들이 영상예배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 마이크로미터 일반 광학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박테리아 보다 훨씬 작은 바이러스는 나노미터 전자현미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테리아는 탄저균, 페스트, 수퍼박테리아로 분류 되고, 바이러스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에이즈, 에볼라, 사스,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로 분류됩니다. 이미 바이러스 질병에 대한 경고를 많은 과학자들이 했고, 전쟁으로 사람이 죽는 것보다 더 많은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1차 세계대전으로 죽은 사람이 약 1500만 명 이상인데 비해, 전쟁 후 스페인인플루엔자(스페인독감)로 죽은 사람은 3배가 넘는 약 75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인류가 겪을 바이러스 재난에 대한 강한 경고를 2015년에 마이크로소프트사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1220억을 기부했습니다.

- 우리가 주일날 마다 구세군안양영문에 모여 예배드렸는데, 오늘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금요기도회를 가족들끼리 드렸고, 그날 밤 깊이 생각하다가 한숨도 못 잤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 신자들의 감격이고 은혜입니다. 이 기쁨을 나누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에게서도 나타납니다.
-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시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모여 예배하던 성전이 무너진다고 예언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으로 매우 웅장하고 화려했기에 그 성전이 황폐해지고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은 누구도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 성전이 무너질 것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그 시기와 말세의 징조를 묻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과 난리와 전쟁을 예고하시며,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끝이 온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로마제국에 의해 성전이 무너지고 제자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나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참다운 믿음은 보이는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선언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성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을 거듭 밝히십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은 곧 사라질 것이기에 우리는 보이는 것을 좇는 헛된 신앙을 버리고, 참된 성전이신 주님만 선경 써야 합니다. 우리들이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실에서 예배드리는 모습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지금 이 순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의상과 태도와 마음가짐과 단장된 여러분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커다란 성전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 몸 된 성전을 이루어갈 지체는 바로 자신들이었습니다.
-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보이는 것, 화려한 건물, 현세적 복에 집착하는 신앙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인생은 이 세상을 지나 천국으로 향하는 순례자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사순절기간에 더욱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신앙의 절기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제자들은 예수님께 종말의 시기와 징조를 묻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시기에 대해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징조로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전쟁과 자연재해 등 종말에 대한 징조를 알려 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자칭 예수라고 하는 이단들이 마지막시대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간에 세월호사건의 배경에는 구원파가 있었고, 코로나바이러스사태에는 신천지가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되 잘못된 종말론, 거짓 그리스도, 이단을 경계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앞으로 있을 환난에 대비해야 합니다.
- 마지막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15절에 “깨달으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합왕과 이세벨의 폭정과 환난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명은 하나님께 무릎 꿇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시대를 분별하며 깨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 사랑하는 안양영문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은 세상적인 형통과 영광의 길이 아니며 역경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받고 죽으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고난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악의 세력은 기승을 부리며 한층 위세를 떨치겠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제자는 최후의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지금도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내하며 충성하는 이들을 통해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시대에 “깨어있는 신앙”으로 주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으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헌신기도

- 주님! 이 마지막시대에 “깨어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크게 보고, 주님만 바라는 신앙이 되게 하시옵소서. 환난의 시대에 인내하는 믿음을 주시고, 고난이 찾아올 때 믿음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들을 회복시키실 주님을 기대하며 마지막까지 충성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0장(통합547장)

- 다같이

축도(가정에서는 주기도문)

-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돌보시며 감동하여 주심이 사랑하는 안양영문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